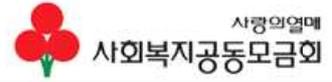


#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공감 회상 활동을 통한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 “올라갈 때 못 본 꽃”



## 1. 사업의 필요성

- ①안심주공1단지는 전체세대 853세대 중 646세대가 기초생활수급세대(전체의 75%) 그 중 노인은 279세대로 전체의 32.7%차지
- ②노년기의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느끼게되는 상실감을 낮추고,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.
- ③지나온 시간에 의미를 찾는 과거회상과 부조화를 조정하는 노력은 자아통합감의 완성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킴.
- ④이에 글쓰기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아픔과 화해할 수 있는 자서전 제작을 매개로 프로그램 기획함.

## 2. 참여자

- 핵심참여자 : 동구지역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5명
- 주변참여자 : 자문위원 2명(노인대상 집단활동 관련 전문가, 글쓰기 작가)  
교육강사 1명(기억회상 집단활동 진행) 14회기

**라이프리포터 15명(핵심참여자의 기억을 회상하여 글쓰기 작업 진행)**

## 3. 주요 내용

기억회상 집단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억공감, 과거인정의 주제를 그림, 활동 등을 활용한 기억회상 집단활동</li> <li>-기간: 2018년 4~7월, 9~11월(월2회, 총14회), 15h/14시간</li> <li>-방법: 전문강사 활용 기억회상의 다양한 주제로 집단활동 실시</li> </ul>
자서전 제작 글쓰기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서전 제작을 위한 라이프리포터와 노인과의 글쓰기 활동</li> <li>-기간: 2018년 4~7월, 9~11월 / 월2회, 총14회</li> <li>-대상: 참가노인 15명, 라이프리포터 15명</li> <li>-방법: 집단활동에서 관찰되고 이야기된 부분을 주제로 집단활동 종료 후 개별만남으로 진행.</li> </ul>

\*그 외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나들이 등 활동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

## 4. 역할

**-라이프리포터 역할(15명) :** 어르신과 2:2로 매칭하여 기억회상 집단활동 참여 14회기(4월~7월, 9월~11월 월 2회 1시간씩), 어르신들의 회상된 기억을 바탕으로 자서전 원고 작성(참가노인 1명당 14개 내외의 이야기가 만들어짐)

## 5. 혜택

- 봉사활동 시간 : 1회 활동시 3시간(교육1시간, 개별만남1시간, 글쓰기1시간)/년간 42시간이상
- 교통비지원 : 1회 5,000원(월10,000원\*7개월)
- 평소 “어르신”, “글쓰기”, “봉사활동”, “사회복지” 등에 관심있었던 학생들의 봉사활동 체험 기회제공

## 6. 복지관위치 및 담당자

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3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김현아 962-3831